

제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존댓말 쓰기 실태

고 창 근*

목 차

1. 서론
2. 부름말 쓰기
3. 가리킴말 쓰기
4. 청자 대우
5. 결론

1. 서론

국어의 待遇法이란, 화자가 청자 또는 話中 人物과의 相對的 관계에 따라 알맞은 말씨를 골라 쓰는 법을 말한다.¹⁾

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령의 상하 관계, 신분의 고저 관계를 감안하여 話者는 언제나 尊卑 意圖를 머금고 發話를 해야 하고, 또한 話者의 발화상에는 언제나 그러한 관계가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나타난다. 다시 말하여, 국어의 모든 언어 표현에는 연령의 상하, 신분의 고저 등에서 오는 상대적 대인관계가 그대로 反射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 구조가 변하고 의식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젊은이들에게는 그러한 연령의 상하, 신분의 고저 등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기준이 안 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우법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 방언의 대우법 연구는 여러 면에서 意義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어 대우법의 본질 이해와 보다 완벽한 體系化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며, 방언의 대우

*제주대 대학원 박사과정

1) 대우법은 달리 경어법, 높임법, 존대법, 존비법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 왔다.

법을 통하여 그 지역 사람들의 사회적, 계층적 구조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²⁾

이 글의 목적은 현재 제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존댓말 쓰기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제주 지역어의 대우법 체계가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제주 지역의 사회적, 계층적 구조를 파악하며 해이해진 존댓말 쓰기를 바로잡는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8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1,000매였는데 응답자는 914명(남 423명, 여 491명)이었다. 설문지의 1면에는 응답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적도록 하였다.

- (1) 학교 등급
- (2) 학교의 위치
- (3) 성별
- (4) 태어나서 주로 자란 곳
- (5) 부모의 고향

위의 자료를 기준으로 낱말이 분석해 본다면 더욱 명확하고 흥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학교의 등급과 성별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내용은 친족과 선생에 관한 부름말, 가리킴말 및 시킴말 등 총 54개 문항의 선다형으로 제시되었다. 선다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여러 가능한 경우를 모두 나열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고, 특히 청자 대우 등급에 관한 물음에서는 초·중·고 학생이라는 응답자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그 범위를 넓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또 지면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말 외에 지식을 동원하여 정답을 찾으려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점들이 처음 예상했던 결과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2) 이익섭(1974), "영동 방언의 경어법 연구", 『서울대 교양과정부 논문집 : 인문·사회과학편』 제6집, pp.49~67 참조

2. 부름말 쓰기

친족(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형, 오빠, 누나, 이모, 고모 등)에 대하여 2~5개씩 가능한 부름말을 제시하여 그 가운데 응답자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을 고르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 분석 결과는 <표1>과 같다.

(1) 어버이에 대한 부름말

아버지에 대하여 '아빠'라 부르는 학생이 95.9%로 압도적이며 '아버지'는 4.1%, '아버님'은 한 명도 없다. 어머니의 경우도 '엄마'가 97%, '어머니'가 3%, '어머님'은 한 명도 없다.

오늘날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는 형제 자매나 친구처럼 매우 가까워졌기 때문에 격식적인 높임의 부름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등하고 친밀한 느낌을 주는 '아빠', '엄마'라는 애칭을 쓰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남학생인 경우 아직 10%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고 있으나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원래 '아빠', '엄마'는 젖먹이들이 쓰던 애칭이었는데 오늘날은 중장년층에도 퍼져 있음을 본다." 이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방송의 힘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여성 쪽에서 변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라는 사회구조적 변화가 여성들의 말씨는 물론 남자들의 존댓말 쓰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부름말의 변화는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부름말

'할아버지'(99.6%), '할머니'(98.8%)가 압도적이다. '조부님', '조모님'이라 부르는 학생은 전혀 없다. '할아버님'(0.4%), '할머님'(12%)은 '조부님'(0%), '조

3) 김혜숙(1991), "현대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태학사, pp.13~20 참조. 1981년 서울의 경우 '아빠'가 24.6%, '엄마'가 78.2%로 조사됐었고 그 후 '아빠', '엄마'가 많이 쓰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당시 제주지역이 서울에 비하여 '아빠', '엄마'의 쓰임이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본다면 지난 17년 동안 부름말 쓰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서정수(1978)에는 15세~39세에서 '아빠' 8.3%, '엄마' 58.7%로 조사됐었다.

모님'(0%) 따위의 한자식 말이 사라지면서 그 대신 등장한 것으로 생각되나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왜냐 하면 현대 사회의 인간 관계는 상하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점점 횡적인 관계로 얽혀져 감에 따라 말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할아버지 할머니는 옛날에 비해 손자들과 더욱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되어 있다. 할아버지의 가부장적 지위는 약화되고 어린 손자들의 재롱 상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 친근미가 있는 보통의 부름말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쓰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3) 큰어버이, 작은어버이에 대한 부름말

이 경우는 어버이에 비하면 다른 특색을 보인다. 즉, '큰아빠'(75.1%), '큰엄마'(81.5%), '작은아빠'(74.3%), '작은엄마'(81.%) 등이 '엄마', '아빠'에 비하면 그 쓰임이 적고, '큰아버지'(20.7%), '큰어머니'(16.9%), '작은아버지'(14.6%), '작은머머니'(14.9%) 등이 꽤 쓰이고 있다는 것이 어버이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가지로 풀이될 수 있겠으나 주요한 까닭은 큰어버이, 작은어버이는 접촉의 기회가 비교적 적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년이 내려갈수록 '큰아빠, 큰엄마, 작은아빠, 작은엄마'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아빠', '엄마'의 경우와 같은 현상이다.

큰어버이와 작은어버이를 비교해 볼 때 큰어버이쪽이 접촉 기회가 적기 때문에 친밀성이 모자란 말인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은어버이는 조카들과 나이차이도 비교적 적고 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이 큰어버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작은아버지의 경우 '삼촌'(10.8%)이란 부름말 비율이 많은 것은 아버지의 형제 중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아버지일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작은어머니를 '숙모님'(3.1%)으로 부르는 것은 '숙부님'이 0.1%밖에 안 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꽤 많은 편인데, 이런 현상은 삼촌뻘 되는 사람의 아내를 통칭하여 '숙모'라 해 왔던 것과 외삼촌의 아내에 대한 부름말로 '외숙모' 외에 다른 말이 없음과도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어버이의 경우처럼 1981년 서울(김혜숙, 1991 : '큰아빠' 7.1%, '큰엄마' 63.1%,

4)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pp.184~185 참조.

제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존댓말 쓰기 실태

'작은아빠' 7.5%, '작은엄마' 58.7%)에 비하면 제주 지역어에서는 그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큰아버님', '큰어머님', '작은아버님', '작은어머님' 등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4) 기타 친족에 대한 부름말(형, 오빠, 누나, 이모, 고모)

'형님' (2.1%)에서 약간 보이기는 하나 거의 모든 경우 존대표지인 '님'이 붙어 있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 이 경우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임 관념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져 친근 관념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에서 친족에 대한 주요 부름말의 쓰임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손위의 친족인데도 존대표지인 '님'이 붙어 있는 부름말을 거의 쓰지 않고 친근감을 주는 평상적 부름말을 많이 쓰고 있음이 여러 경우에서 밝혀졌다. 이는 존대법의 하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아빠', '엄마' 등 친밀감을 주는 부름말이 압도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의 존댓말이 높낮이나 격식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격의 없는 대인관계의 부드럽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 가리킴말 쓰기

가리킴말은 친구와 대화할 때와 어른과 대화할 때로 나누어서 조사했다. <표2>, <표3>에서 보듯이 예상했던 대로 두 경우는 매우 달리 나타났다. 또 부름말과도 뚜렷이 달리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름말은 말할이가 들을이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만 가리킴말인 경우는 말할이와 들을이, 말할이와 말 속의 인물 그리고 들을이와 말 속의 인물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1) 어버이에 대한 가리킴말

부름말에 비하여 '엄마', '아빠'의 표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친구에게 말할 때 아빠 88.9%, 엄마 90.9%), 어른과 대화할 때는 더 크게 줄었음을 볼 수 있으며(아빠 66.9%, 엄마 72.6%) 특히 중·고의 남학생인 경우 그 비율이 50%도 안 되고 있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하여 다른 사람, 특히 어른과 대화할 때

는 격식을 갖추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며, 말 속의 인물이 객관화됨으로써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학교 문법의 공적인 표현에서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음과도 궤를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부름말에 없었던 방언형 '아방', '어멍'과 존대표지 '님'이 붙어 있는 말이 조금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2)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가리킴말

친구에게 말할 때 방언형 '하르방' (3.7%), '할망' (4%)이 쓰이고 있고 또 공통적으로 '님' 표지가 붙어 있는 말과 한자말 '조부님', '조모님'을 사용하는 응답자도 한두 명 보이지만 부름말에서처럼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부분이다.

(3) 큰어버이, 작은어버이에 대한 가리킴말

친구에게 말할 때는 각 항의 비율이 부름말과 거의 비슷하나(큰아빠 75.8%, 큰엄마 80.4%, 작은아빠 77.8%, 작은엄마 84.5%), 어른에게 말할 때는 애칭의 사용이 적어지면서('큰아빠' 60.5%, '큰엄마' 62.6%, '작은아빠' 61.8%, '작은엄마' 66.3%) '큰아버지' (32.4%), '큰어머니' (32.8%), '작은아버지' (30.2%), '작은어머니' (28.7%)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또 어른에게 말할 때 '님' 표지가 꽤 보인다.

(4) 기타 친족에 대한 가리킴말

형, 오빠, 누나, 이모, 고모 등에서 미미하긴 하지만 부름말에서보다는 '님' 표지가 조금 더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성', '성님', '오라방' 등 방언형도 보인다.

이상에서 볼 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빠, 엄마' 류의 애칭 사용을 가급적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친족에 대해서 높여 가리키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더 높은 손윗사람 앞에서 덜 높은 사람을 낮추어 말하는 이른바 압존법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존댓말 쓰기 실태

(5) 교사에 대한 가리킴말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사에 대하여, 부름말로서는 '선생님' 외에 달리 쓰이고 있지 않으므로 가리킴말에 대해서만 친구에게 말할 때와 어른에게 말할 때로 나누어 조사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친구와 대화할 때는 '선생' 40.4%, '선생님' 59.6%이다. 중·고 남학생의 경우는 '선생'으로 가리키는 비율이 훨씬 높다(67%). 또 고등학교로 갈수록 '선생'으로 부르려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친족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생에 대해서도 존대 의식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른 앞에서는 아직 '선생님'이 92.8%로 높지만 '선생'도 7.2%나 되고 있다. 이 경우도 친구 앞에서처럼 '선생' 쪽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갈 것으로 생각한다.

<표>

대상	가리킴말 (친구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백분율
		남	여	남	여	남	여		
교사	선 생	13	13	65	43	139	86	359	40.4
	선생님	92	89	49	125	52	122	529	59.6

대상	가리킴말 (어른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백분율
		남	여	남	여	남	여		
교사	선 생	13	13	65	43	139	86	359	40.4
	선생님	103	100	113	161	165	186	828	92.8

4. 청자 대우

청자 대우법이란, '들음'의와의 상대적 관계에 맞추어 말하는 법을 일컫는다. 청자 대우법은 달리 '공손법', '겸손법', '상대존대법', '청자존대법' 등으로 불려

5) 서정수(1972), "현대 국어의 대우법 연구", 『어학연구』 8권 2호(서울대 어학연구소), pp.78~81.

여기서 '상대'란 말이 반드시 '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칫 모호성이 개재될 가능성이 있고, 또 겸손법이니 공손법이니 하는 말은 경어법, 존경법, 공대법 따위 용어와 혼동하기 쉬움을 지적했다.

왔다.⁶⁾

오늘날 제주지역어의 청자 대우법을 알아보기 위해 <표4>에서와 같이 7가지 항목을 설정했다. 조사 대상의 제약으로 어른이 손아랫사람에게 흔히 쓰는 '해라'체가 제외됐지만 그 외의 등급을 알아보는 데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제주 방언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흡서'체, '햅여마쑈'체, '햅여'체, '햅라'체 등으로만 체계화될 것이다.⁷⁾ 오늘날 표준어 교육의 결과 젊은이들의 언어에서는 그 체계가 이미 무너져 있으므로 방언형만을 고집할 수는 없게 되었다. 특히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1) 친족에 대한 청자 대우

<표4>에서 ①은 '해'체, ②와 ⑥⑦은 '합쇼'체, ③④⑤는 '해요'체에 해당될 것이다.⁸⁾

아버지를 대상으로 두루뎛춤의 '해'체가 13.5%,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체가 22.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놀랍거니와, 이러한 반말투는 방송의 영향을

- 6) 지금까지 제주 지역어의 청자 대우 등분에 대하여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왔다.
 - ① 이승녕(1957) : 존칭-중칭-평칭
 - ② 박용후(1960) : 아주높임-예사높임-예사낮춤-아주낮춤
 - ③ 현평효(1974) : 존대(흡서체)-평대(햅여체)-하대(햅라체)
- 7) 고창근(1993), "제주도 방언의 청자대우법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10 참조.
- 8) 높낮이 관계와 아울러 격식, 비격식의 개념을 도입하여 복합적으로 준비 등급을 구분한 논의로서 황적륜(1975)을 보면 다음과 같다.

	formal	informal
level 1 (most deferential)	-(u/i)pnita	-(e)yo
level 2	-o	
level 3	-ne	pan mal
level 4 (most condescending)	-ta	

서정수(1984)에서는 이와 비슷한 가름을 하면서 '해요'체와 '해'체를 각각 존대 등급과 비존대 등급에 두루 쓰이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장석진(1973)에서는 plain, intimate, familiar, blunt, formal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고, 앞의 네 등급을 비격식적(informal)인 것으로 보았고 이른바 '해요'체는 독자적인 등급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존댓말 쓰기 실태

크게 받은 때문이라 하겠으며 앞으로도 방송사의 노력과 학교 가정에서의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계속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해'체는 여학생쪽이 남학생보다 배 이상 쓰고 있으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을 때가 아버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다.

김혜숙(1991)에서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해'체가 24.3%로 나타났는데, 거기서도 남자보다는 여자 응답자가 3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이 높낮이 관념이 희박하고 비격식적이고 친밀성이 짙은 말씨를 즐겨쓰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②항의 방언형 '흡서'체는 아직 22% 정도로 유지하고 있으나, ⑥⑦항의 표준어 '합쇼'체는 고작 0.7% 정도로서 높임말에서는 격식체가 거의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신 ③④⑤항의 두루높임 '해요'체가 60%로 압도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 외의 대상에서는 '흡서'체까지도 '해요'체로 이동하여 '해요'체가 85% 내외로 쓰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두루낮춤의 '해'체가 3% 내외로 줄어든 것은 아버지, 어머니보다 덜 가깝고 덜 친근하기 때문으로 부름말과 가리킴말에서 큰아빠, 큰엄마, 작은아빠, 작은엄마 등의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교사에 대한 칭자 대우

〈표5〉에서 보면 '합쇼'체의 사용이 28.6%, '해요'체의 사용이 66.3%, '해'체의 사용이 5.1%(이신디 3.2%, 있는데 1.9%)로 나타난다.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는 높임의 격식체인 '합쇼'체가 28.6%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존대 의식이 약간 남아 있다고 하겠으나 이 경우도 '해요'체의 확산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도 격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두루 낮춤의 반말체인 '해'체가 5.1%나 된다는 것은 격식뿐만 아니라 존대의 식조차도 약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5. 결론

이상에서 제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존댓말 쓰기 실태를 설문 조사 분석

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친족에 대한 부름말 쓰임에서 아버지의 경우 '아버님', '어머님' 등 높임의 부름말은 전혀 없고, '아빠', '엄마' 등 친근감이 풍기는 부름말이 거의 쓰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손위의 다른 친족들에 대하여서도 존대 표지 '님'이 붙어 있는 부름말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친근감을 주는 평상적 부름말을 많이 쓰고 있음이 여러 경우에서 밝혀졌다. 이는 존대법의 하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날의 존댓말이 높낮이나 격식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격의 없는 대인관계의 부드럽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가리킴말로서 '아빠, 엄마' 류의 애칭 사용을 가급적 피하고, 또 친족을 높여 가리키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더 높은 손윗사람 앞에서 덜 높은 사람을 낮추어 말하는 이른바 압존법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친구와 대화할 때의 가리킴말도 '선생'이 40.4%, '선생님'이 59.6%이다. 중·고남학생의 경우는 '선생'으로 가리키는 비율이 훨씬 높다(67%). 또 고등학교로 갈수록 '선생'으로 부르려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친족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생에 대해서도 존대 의식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른 앞에서 말할 때는 아직 '선생님'이 92.8%로 높지만 '선생'도 7.2%나 되고 있다. 이 경우도 친구 앞에서처럼 '선생' 쪽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갈 것으로 생각한다.

아버이를 대상으로 두루뎅춤의 '해'체(20%)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젊은 층,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높낮이 관념이 희박하며, 비격식적이고 친밀성이 짙은 말씨를 즐겨쓰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반말투는 방송의 영향 때문이라 하겠는데, 앞으로도 방송사의 노력과 학교·가정에서의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계속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아버이 외의 대상에서는 '훈서'체까지도 '혜요'체(85%)로 이동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반말 '해'체가 3% 내외로 아버이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비교적 적은 것은 덜 가깝고 덜 친근하기 때문으로 부름말과 가리킴말에서 큰아빠, 큰엄마, 작은아빠, 작은엄마 등의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선생을 대상으로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말할 때보다 높임의 격식체

제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존댓말 쓰기 실태

인 '합쇼'체가 28.6%로 높게 나타나 존대의식이 약간 남아 있다고 하겠으나 이 경우도 '해요'체가 점차확산되어가고 있어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도 격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두루 낮춤의 반말체인 '해'체가 5.1%나 있다는 것은 격식뿐만이 아니라 가리킴말에서 보여주었듯이 존대 의식조차도 약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근거라 하겠다.

참고 문헌

- 강신항 (1984), 안동 방언의 경어법, 김종훈 편 <국어 경어법 연구>, 집문당
 —— (1984), 현대국어의 가족 명칭에 대하여, 김종훈 편 <국어 경어법 연구>, 집문당
 강정희 (1988), 제주 방언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고영근 (1974a),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1, 서울대
 —— (1974b), 현대국어의 존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서울대
 고영진 (1984), 제주 방언의 인용문 연구, 석사학위 논문(연세대)
 고창근 (1983), 제주도 방언의 청자대우법 연구, 석사학위 논문(제주대)
 김귀자 (1974), 제주도 방언의 존경 접미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이화여대)
 김종택 (1981), 국어 존대법의 위상과 그 기술, 국어교육논지 5, 경북대
 김태곤 (1984), 조선시대 친척 명칭고, 김종훈 편 <국어 경어법 연구>, 집문당
 김형규 (1947), 경양사의 연구, 한글 99, 한글학회
 —— (1975), 국어 경어법 연구, 동양학 5, 단국대학교
 김혜숙 (1991), 현대 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태학사
 박영순 (1976), 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박용후 (1960), 제주 방언 연구, 동원사
 서정목 (1988), 한국어 청자 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 국어학 17
 서정수 (1972), 현대 국어의 대우법 연구, 어학연구 8권 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1978), 서울지방의 경어법 설문조사
 —— (1979), 존대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1) : 부름말과 가리킴말, 한글, 165호
 —— (1980), 존대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2) : 청자대우 등급의 간소화, 한글 167호
 —— (1984), 존대법의 연구 : 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한신문화사
 성기철 (1970), 존비법의 한 고찰, 어문학 23호
 —— (1985), 현대국어 대우법 연구, 개문사
 이기갑 (1982), 전남 북부 방언의 상대 높임법, 언어학 5, 한국 언어학회

白鹿語文 第15輯(1999. 2.)

- 이상복 (1976), '-요'에 관한 연구, 연세 어문학 7·8, 연세대학교
—— (1984), 국어의 상대 존대법 연구, 배달말 9, 배달말 학회
- 이승녕 (1964), 경어법 연구, 진단학보 25-26-27, 진단학회
- 이익섭 (1974), 영동 방언의 경어법 연구, 서울대 교양과정부 논문집 제16집(인문사회
편)
—— (1975), 국어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 임홍빈 (1976), 존대 겸양의 통사 절차에 대하여,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 장석진 (1985), 화용론 연구, 탑출판사
- 최명옥 (1976), 현대 국어의 의문법 연구,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 최현배 (1929), 우리말본, 정음사
- 허 응 (1954), 서기 15세기의 국어 존대법과 그 변천, 성균관대 논문집 1호
—— (1975), 우리 옛 말본, 샘문화사
- 현평효 (1976),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박사학위논문(동국대)
—— (1985), 제주도 방언 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 현평효·김홍식·강근보(1974), 제주도 방언의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 논문집 제6
집
- 홍종립 (1975),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서울대)
- 황적륜 (1976a), 한국어 대우법의 사회언어학적 기술 : 그 형식화의 가능성 기술, 언어
와 언어학 4, 한국외대
—— (1976b), 국어의 존대법, 언어 1-2, 한국언어학회

제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존댓말 쓰기 실태

〈표1〉

대상	부름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백분율
		남	여	남	여	남	여		
아버지	아빠	98	101	120	165	160	217	861	95.9
	아버지	5	1	5	3	21	2	37	4.1
	아버님	-	-	-	-	-	-	0	-
어머니	엄마	102	100	123	164	171	222	882	97.0
	어머니	3	-	1	3	18	2	27	3.0
	어머님	-	-	-	-	-	-	0	-
할아버지	할아버지	86	84	107	143	120	177	717	99.6
	할아버님	1	-	-	-	2	-	3	0.4
	조부님	-	-	-	-	-	-	0	-
할머니	할머니	97	99	120	155	165	208	844	98.8
	할머님	2	-	-	2	5	1	10	1.2
	조모님	-	-	-	-	-	-	0	-
큰아버지	큰아빠	60	65	64	117	71	135	512	75.1
	큰아버지	12	6	35	12	44	32	141	20.7
	큰아버님	-	-	-	1	-	-	1	0.1
	백부님	-	-	-	-	-	-	0	-
큰어머니	삼촌	5	-	6	5	6	6	28	4.1
	큰엄마	66	65	72	124	75	144	546	81.5
	큰어머니	5	7	29	10	41	21	113	16.9
	큰어머님	-	-	1	1	1	-	3	0.4
	백모님	-	-	-	-	-	-	0	-
작은아버지	삼촌	1	-	1	-	4	2	8	1.2
	작은아빠	69	74	80	116	86	144	569	74.3
	작은아버지	8	6	18	9	46	25	112	14.6
	작은아버님	1	-	-	-	-	-	1	0.1
	숙부님	-	-	-	-	1	-	1	0.1
작은어머니	삼촌	14	5	20	15	13	16	83	10.8
	작은엄마	73	72	72	121	88	151	577	81.0
	작은어머니	8	6	22	7	40	23	106	14.9
	작은어머님	1	-	-	-	-	-	1	0.1
	숙모님	1	1	4	3	8	5	22	3.1
형	삼촌	-	-	-	1	4	1	6	0.8
	형	65	-	88	-	127	-	280	97.2
	형님	-	-	2	-	4	-	6	2.1
	성	-	-	1	-	1	-	2	0.7
	성님	-	-	-	-	-	-	0	-

白鹿語文 第15輯(1999. 2.)

대상	부름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백분율
		남	여	남	여	남	여		
오빠	오빠	-	71	-	112	-	176	359	99.2
	오라버니	-	-	-	-	-	1	1	0.3
	오라버님	-	-	-	-	-	-	0	-
	오라방	-	-	-	2	-	-	2	0.5
누나	누나	75	-	95	-	127	-	297	99.3
	누님	-	-	1	-	1	-	2	0.7
이모	이모	97	91	113	158	172	203	834	99.5
	이모님	1	-	-	-	1	2	4	0.5
고모	고모	98	96	116	156	164	205	835	99.3
	고모님	2	-	-	-	2	2	6	0.7

<표2>

대상	가리킴말 (친구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백분율
		남	여	남	여	남	여		
아버지	아빠	95	100	107	158	118	137	715	88.9
	아방	-	1	16	6	27	6	56	7.0
	아버지	9	1	4	3	15	1	33	4.1
	아버님	-	-	-	-	-	-	0	-
어머니	엄마	100	99	110	154	121	152	736	90.9
	어멍	-	2	11	7	20	6	46	5.7
	어머니	2	2	3	5	8	3	23	2.8
	어머님	1	-	-	-	2	2	5	0.6
할아버지	하르방	1	1	6	6	8	5	27	3.7
	할아버지	89	92	111	151	113	130	686	94.6
	할아버님	2	-	-	-	4	3	9	1.2
	조부님	-	-	-	-	2	1	3	0.4
할머니	할망	-	2	7	6	11	5	31	4
	할머니	99	89	115	155	146	130	734	94.5
	할머님	2	2	-	1	3	2	10	1.3
	조모님	-	-	-	-	1	1	2	0.3
큰아버지	큰아빠	59	74	87	146	84	75	525	75.8
	큰아버지	17	10	23	7	33	39	129	18.6
	큰아버님	-	-	-	-	1	-	1	0.1
	백부님	-	-	-	-	2	2	4	0.6
	삼촌	7	3	7	6	4	7	34	4.9

제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존댓말 쓰기 실태

대상	가리킴말 (친구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백분율
		남	여	남	여	남	여		
큰어머니	큰엄마	64	71	91	148	82	80	536	80.4
	큰어머니	10	4	21	7	27	38	107	16.0
	큰어머님	-	-	-	-	-	1	1	0.1
	백모님	-	-	-	-	1	2	3	0.4
	삼촌	6	2	4	4	4	-	20	3.0
작은아버지	작은아빠	71	85	91	143	96	74	560	77.8
	작은아버지	13	4	15	2	24	39	97	13.5
	작은아버님	-	-	-	-	1	1	2	0.3
	숙부님	-	-	1	1	-	1	3	0.4
	삼촌	10	5	8	15	10	10	58	8.1
작은어머니	작은엄마	80	89	97	149	87	82	584	84.5
	작은어머니	6	2	12	4	20	32	76	11.0
	작은어머님	-	-	-	-	-	2	2	0.3
	숙모님	1	1	1	5	8	2	18	2.6
	삼촌	4	1	-	1	1	4	11	2.0
형	형	70	-	97	-	124	-	291	96.4
	형님	1	-	-	-	2	-	3	1.0
	성	-	-	-	-	3	-	3	1.0
	성님	-	-	1	-	4	-	5	1.6
오빠	오빠	-	81	-	151	-	108	340	96.3
	오라버니	-	-	-	-	-	6	6	1.7
	오라버님	-	-	-	-	-	1	1	0.3
	오라방	-	1	-	2	-	3	6	1.7
누나	누나	73	-	96	-	113	-	282	98.9
	누님	-	-	2	-	1	-	3	1.1
이모	이모	96	95	108	159	135	126	719	97.8
	이모님	2	-	3	1	5	5	16	2.2
고모	고모	99	100	108	158	143	124	732	98.4
	고모님	2	-	2	-	2	6	12	1.6

白鹿語文 第15輯(1999. 2.)

<표3>

대상	가리킴말 (어른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백분율
		남	여	남	여	남	여		
아버지	아빠	73	78	56	137	83	116	543	66.9
	아방	2	-	-	-	1	1	4	0.5
	아버지	26	21	62	29	83	39	260	32.0
	아버님	1	-	1	-	1	2	5	0.6
어머니	엄마	80	81	67	140	80	131	579	72.6
	어멍	1	-	-	-	1	2	4	0.5
	어머니	18	17	54	25	66	23	203	25.5
	어머님	2	-	1	1	6	1	11	1.4
할아버지	하르방	-	-	2	2	1	1	6	0.8
	할아버지	90	91	116	149	135	146	727	96.7
	할아버님	3	2	1	6	3	2	17	2.3
	조부님	-	-	-	-	1	1	2	0.3
할머니	할망	-	-	-	1	2	1	4	0.5
	할머니	99	97	120	160	156	148	780	98.0
	할머님	3	1	3	1	3	-	11	1.4
	조모님	-	-	-	-	1	-	1	0.1
큰아버지	큰아빠	47	67	49	123	57	75	418	60.5
	큰아버지	28	17	59	29	52	39	224	32.4
	큰아버님	3	-	2	1	3	-	9	1.3
	백부님	-	-	-	1	4	2	7	1.0
	삼촌	5	3	5	6	7	7	33	4.8
큰어머니	큰엄마	51	71	54	123	48	80	427	62.6
	큰어머니	20	16	57	33	60	38	224	32.8
	큰어머님	2	1	1	1	3	1	9	1.3
	백모님	-	-	1	1	5	2	9	1.3
	삼촌	5	-	5	1	2	-	13	1.9
작은아버지	작은아빠	58	77	55	119	64	74	447	61.8
	작은아버지	27	13	52	30	57	39	218	30.2
	작은아버님	1	-	1	1	3	1	7	1.0
	숙부님	-	-	-	-	1	1	2	0.3
	삼촌	8	2	9	11	9	10	49	6.8
작은어머니	작은엄마	55	76	67	122	65	82	467	66.3
	작은어머니	33	12	43	31	51	32	202	28.7
	작은어머님	-	2	-	-	1	2	5	0.7
	숙모님	-	1	1	5	7	2	16	2.3
	삼촌	4	2	1	-	3	4	14	2.0

제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존댓말 쓰기 실태

대상	가리킴말 (친구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백분율
		남	여	남	여	남	여		
형	형	69	-	94	-	120	-	283	94.3
	형님	1	-	2	-	6	-	9	3.0
	성	1	-	1	-	2	-	4	1.3
	성님	-	-	1	-	3	-	4	1.3
오빠	오빠	-	81	5	152	-	108	346	96.1
	오라버니	-	1	3	-	-	6	10	2.8
	오라버님	-	-	-	-	-	1	1	0.3
	오라방	-	-	-	-	-	3	3	0.8
누나	누나	73	-	94	-	100	-	267	97.8
	누님	-	-	4	-	2	-	6	2.2
이모	이모	95	89	104	160	138	126	712	96.1
	이모님	2	6	8	-	8	5	29	3.9
고모	고모	98	92	106	158	139	124	717	96.8
	고모님	3	7	6	-	2	6	24	3.2

<표4>

대상	시키는말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합	백분율
		남	여	남	여	남	여		
아버지	①먹어	5	17	7	44	15	28	116	13.5
	②먹읍서	4	3	27	19	75	56	184	21.4
	③먹어요	14	10	14	12	6	14	70	8.2
	④식사하세요	58	55	54	69	78	61	375	43.7
	⑤진지드세요	20	19	18	19	19	10	105	12.2
	⑥식사하십시오	1	-	2	-	2	1	6	0.7
	⑦진지드십시오	-	-	-	1	1	-	2	0.2
어머니	①먹어	6	21	18	57	28	54	184	22.4
	②먹읍서	5	4	28	20	82	41	180	21.9
	③먹어요	15	9	15	12	8	9	68	8.3
	④식사하세요	58	53	42	61	52	43	309	37.5
	⑤진지드세요	17	14	13	15	14	4	77	9.4
	⑥식사하십시오	1	-	2	1	-	-	4	0.5
	⑦진지드십시오	-	-	-	-	1	-	1	0.1
할아버지	①먹어	2	2	1	2	-	2	9	1.3
	②먹읍서	2	-	9	12	13	13	49	7.2

白鹿語文 第15輯(1999. 2.)

대상	시키는말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합	백분율
		남	여	남	여	남	여		
	③먹어요	6	2	4	6	3	1	22	3.2
	④식사하세요	28	22	24	51	48	46	219	32.3
	⑤진지드세요	44	59	55	66	54	50	328	48.4
	⑥식사하십시오	1	1	6	-	3	9	20	3.0
	⑦진지드십시오	4	1	5	4	8	8	30	4.4
할머니	①먹어	4	4	2	11	2	3	26	3.5
	②먹읍서	3	-	14	14	22	25	78	10.6
	③먹어요	5	6	3	7	6	1	28	3.8
	④식사하세요	35	30	27	50	52	55	249	34.0
	⑤진지드세요	46	56	55	68	56	51	332	45.3
	⑥식사하십시오	3	1	6	-	5	7	22	3.0
	⑦진지드십시오	4	1	6	3	7	5	26	3.5
큰아버지	①먹어	2	2	1	3	-	4	12	1.9
	②먹읍서	-	-	6	6	25	13	50	8.0
	③먹어요	6	5	4	10	4	-	29	4.6
	④식사하세요	48	41	63	87	61	77	377	60.1
	⑤진지드세요	16	26	24	26	30	18	140	22.3
	⑥식사하십시오	2	-	3	1	4	1	11	1.8
	⑦진지드십시오	1	-	2	-	3	2	8	1.3
큰어머니	①먹어	1	2	2	2	1	3	11	1.8
	②먹읍서	-	-	7	5	24	15	51	8.5
	③먹어요	2	5	4	12	4	1	28	4.7
	④식사하세요	48	42	63	93	57	69	372	61.9
	⑤진지드세요	15	21	17	21	29	17	120	20.0
	⑥식사하십시오	2	-	3	-	3	3	11	1.8
	⑦진지드십시오	1	-	2	-	3	2	8	1.3
작은아버지	①먹어	3	2	6	12	3	7	33	5.1
	②먹읍서	2	-	11	10	27	20	72	10.8
	③먹어요	5	6	9	19	6	3	48	7.4
	④식사하세요	36	50	68	78	82	75	389	59.9
	⑤진지드세요	12	21	12	19	22	12	98	15.1
	⑥식사하십시오	2	-	1	-	5	-	8	1.2
	⑦진지드십시오	-	-	1	-	2	-	3	0.5

제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존댓말 쓰기 실태

〈표4〉

대상	표 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합	백분율
		남	여	남	여	남	여		
친구에게	①있다	7	10	12	12	13	4	58	-
	②이서	21	18	58	68	91	77	333	-
	③있어	21	22	26	32	17	17	135	-
	④잇저	2	-	8	3	10	5	28	-
	⑤계셔	39	40	25	43	16	32	195	-
	⑥계시다	12	11	6	8	9	5	51	-
선생님에게	①이수다	1	-	2	1	3	3	10	1.2
	②이신디	2	1	3	5	6	9	26	3.2
	③있는데요	18	15	33	33	50	28	177	22
	④있습니다	5	9	20	5	10	4	53	6.6
	⑤계셔요	44	49	35	57	32	50	267	33.2
	⑥있어요	14	9	5	31	12	10	81	10.1
	⑦이신디마씀	-	-	-	1	2	5	8	1
	⑧있는데	-	-	2	2	7	4	15	1.9
	⑨계십니다	21	21	38	31	31	25	167	20.8
할아버지에게	①이수다	2	-	2	6	4	7	21	-
	②이신디	2	-	4	4	4	7	21	-
	③있는데요	13	13	32	20	27	21	126	-
	④있습니다	4	-	13	5	5	3	30	-
	⑤계셔요	34	37	30	50	26	30	207	-
	⑥있어요	15	11	19	40	15	21	121	-
	⑦이신디마씀	-	-	2	2	2	7	13	-
	⑧있는데	4	1	7	3	7	5	27	-
	⑨계십니다	22	27	20	22	17	10	-	-